

HESCO

CHART Q100

저자 Headmaster



1. 빈곤과 복지 제도

#1~#9 Level 1

#10~#26 Level 2

#27~#40 level 3

#41~#43 level 4

2. 다양한 불평등

#44~#50 Level 1

#51~#60 Level 2

#61~#68 Level 3

#69~#72 Level 4

3. 현대의 사회 변동

#73~#77 Level 1

#78~#89 Level 2

#90~#97 Level 3

#98~#100 Level 4

정답 _ 106P

1. 빈곤과 복지 제도

#1~#9 Level 1

#10~#26 Level 2

#27~#40 level 3

#41~#43 level 4

LEVEL 1

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의 질문을 통해 구분할 수 없는 (가)와 (다) 중에서, (가)는 (다)와 달리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으로만 소요되는 비용을 총당한다. 자료는 연도별 갑국의 (가)~(다) 제도 수급자 비율 변화를 나타낸다. 단, t+10년과 t+20년 갑국의 전체 인구는 각각 t년의 1.2, 1.5배이다.

(단위 : %)

구분	(가)	(나)	(다)
t년	15.2	11.9	31.2
t+10년	14.8	10.1	36.0
t+20년	13.9	13.2	27.0

$$* \text{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보 기>

- ㄱ. (나)는 (가), (다)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ㄴ.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주어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ㄷ.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이 t+10년보다 많다.
- ㄹ.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20년이 t+10년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MEMO

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를 제외한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국가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나)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부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자료 2> 각 분위별 (가), (나) 수급액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구분	소득 크기에 따른 구분				
	(고소득)<-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 (저소득) 1분위
(가)	10	15	30	30	50
(나)	0	0	0	20	30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 총소득 = 민간 소득 + (가) +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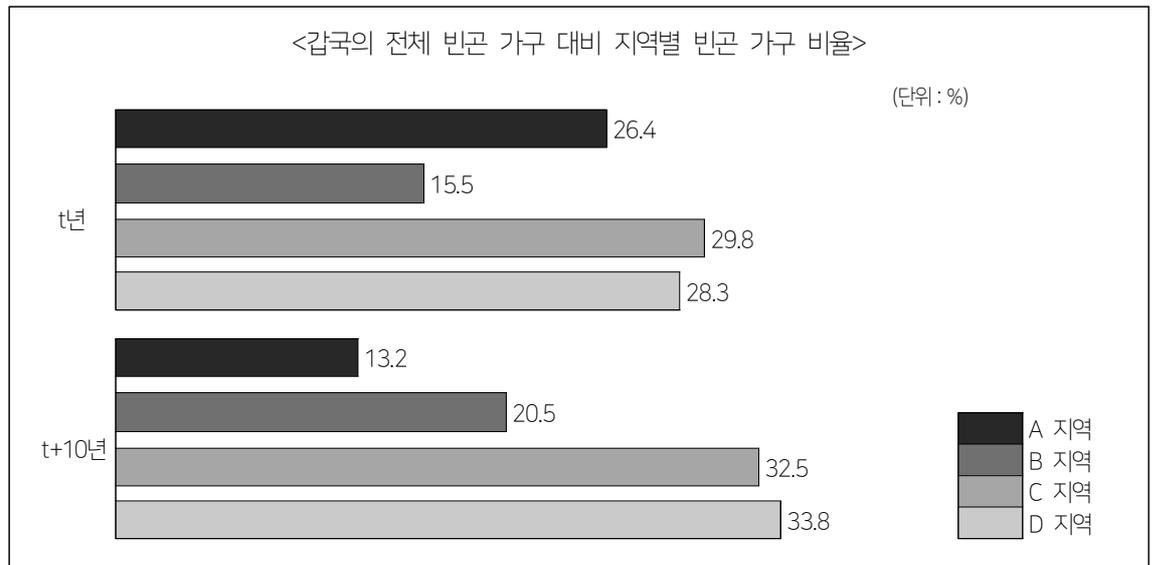
*** 각 분위별 가구 수는 동일하며, 각 분위별 평균 총소득은 다르다.

- ① 2분위의 경우 민간 소득이 총소득의 과반을 차지한다.
- ② 가구당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한 평균 수급액은 4분위가 3분위보다 적다.
- ③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액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분위가 낮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④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2분위 가구 수급 총액은 1분위 가구 수급 총액보다 적다.
- ⑤ 주어진 소득 분위 중 총소득에서 민간 소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분위는 한 개이다.

MEMO

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은 A~D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t년 대비 t+10년에 갑국의 전체 빈곤 가구 수는 증가함.)



<보 기>

- ㄱ. A 지역의 t년 빈곤 가구 수는 t+10년의 2배이다.
- ㄴ. A~D 지역 중 빈곤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t년과 t+10년이 서로 다르다.
- ㄷ. B 지역의 빈곤 가구 비율은 t년 대비 t+10년에 5% 증가하였다.
- ㄹ. t년 대비 t+10년 지역별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은 D 지역이 C 지역보다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MEMO

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임.)

그림은 갑국의 t년과 t+10년 A 인가와 B 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단, t년 갑국은 최저 생계비의 2배가 중위 소득보다 높았다.

구분		A 인가와 B 인구의 상대적 크기									
t년	A 인구	■	■	■	■	■	■	■	■	■	■
	B 인구	■	■	■	■	■	■	■	■	■	■
t+10년	A 인구	■	■	■	■	■	■	■	■	■	■
	B 인구	■	■	■	■	■	■	■	■	■	■

- ① A는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다.
- ② A와 B를 판단하는 기준선은 모두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다.
- ③ 갑국의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와 달리 t+10년이 t년보다 높다.
- ④ 갑국의 t+10년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다.
- ⑤ 갑국의 t년 상대 빈곤 인구 대비 절대 빈곤 인구의 비는 t+10년 절대 빈곤 인구 대비 상대 빈곤 인구의 비보다 크다.

MEMO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과 을국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 절대적 빈곤 가구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 상대적 빈곤 가구로 분류한다. 2023년에 갑국과 을국에서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갑국에서는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20%, 상대적 빈곤 가구 중 80%로 나타났으며, 을국에서는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15%, 절대적 빈곤 가구 중 60%로 나타났다.

- ① ㉠은 ㉡과 달리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만 나타난다.
- ② ㉡은 ㉠과 달리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을 의미한다.
- ③ 2023년 갑국의 중위 소득과 을국의 최저 생계비의 2배는 동일하다.
- ④ 2023년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 ⑤ 2023년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의 총합은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의 총합보다 많다.

MEMO

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가) 국가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 (나)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부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성별 인구 중 (가), (나) 제도의 지역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	8	11	9	9	14	Ⓛ
(나)	50	65	Ⓣ	60	50	55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 A 지역의 남성 수와 B 지역의 여성 수는 같음.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의 5배이다.
- ㄴ.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남성 수급자 수와 여성 수급자 수의 차이는 B 지역보다 A 지역이 크다.
- ㄷ.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A 지역 전체 수급자 수는 B 지역 여성 수급자 수보다 많다.
- ㄹ.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전체 수급자 비율 대비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전체 수급자 비율의 비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MEMO

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며,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나)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시기별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t년		t+10년	
	(가)	(나)	(가)	(나)
A 지역	6.4	17.2	7.2	15.5
B 지역	7.0	16.6	6.9	16.1
전체	6.7	16.9	7.1	15.7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t년과 t+10년의 갑국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 ①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이다.
- ② t년 (가)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 ③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비율은 t년이 t+10년보다 높다.
- ④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와 B 지역 수급자 수 간 차이는 t년과 t+10년이 같다.
- 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t+10년 A 지역 수급자 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t년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적다.

MEMO

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t 년) 갑국은 표와 같은 빈곤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갑국 정부는 향후($t+100$ 년) 발생할 빈곤 인구의 변화를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예측하여 A, B의 결과를 얻었다. t 년의 절대 빈곤 인구와 상대 빈곤 인구의 차는 t 년 전체 인구의 10%이며, $t+100$ 년의 전체 인구는 t 년 전체 인구의 120%이다.

구분	현재(t 년)	$t+100$ 년의 시나리오 예측 결과	
		A	B
절대 빈곤 인구	250만 명	t 년 대비 20% 증가	t 년 대비 40% 감소
상대 빈곤 인구	500만 명	t 년 대비 50% 감소	t 년 대비 20% 증가

* 갑국의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 생계비,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1/2이다.

** A의 최저 생계비, 중위 소득은 B의 최저 생계비, 중위 소득과 동일하다.

- ①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는 t 년이 B의 경우보다 크다.
- ② A의 경우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 ③ A와 달리 B의 경우 t 년에 비해 상대적 빈곤선은 상승하였다.
- ④ A의 경우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의 총합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하이다.
- ⑤ B의 경우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의 총합은 A의 경우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의 총합의 60%이다.

MEMO

9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갑국의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갑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 제도를 보여준다.

구분	총급여액	근로 장려금 지급액
절대적 빈곤 가구	5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0.6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만 원 이상~1천 600만 원 미만	800만 원 - 총급여액 × 0.5
상대적 빈곤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0.3
	800만 원 이상~1천 800만 원 미만	240만 원
	1천 800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600만 원 - 총급여액 × 0.2

< 보 기 >

- ㄱ. 최저 생계비의 2배는 중위 소득보다 높다.
- ㄴ. 절대적 빈곤 가구에서 총급여액이 400만 원인 가구와 1,120만 원인 가구의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같다.
- ㄷ. 상대적 빈곤 가구에서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가구가 2,500만원인 가구보다 많다.
- ㄹ.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에 모두 속하는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가구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MEMO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자료는 t-1년부터 t+2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국의 이전 조사 연도 대비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의 변화율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기간 동안 갑국의 최저 생계비와 중위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t+1년 갑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1.5배이다.

(단위 : %)

구분	t년	t+1년	t+2년
상대적 빈곤 가구 변화율	20	25	-10
절대적 빈곤 가구 변화율	-20	0	10

* 절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50% 이상인 가구

<보 기>

- ㄱ. 조사 연도 중 중위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낮은 연도가 존재한다.
- ㄴ. t년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의 총합 대비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의 총합의 비율은 120%이다.
- ㄷ. 전체 가구 대비 해당 빈곤 가구의 비율은 t-1년의 상대적 빈곤 가구가 t+1년의 절대적 빈곤 가구보다 높다.
- ㄹ. t-1년 대비 t+2년 최저 생계비의 증가율은 중위 소득의 증가율보다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며,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은 물론 재취업 촉진,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업장 및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나)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 2> 갑국의 지역·시기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가) 수급자	53.2	57.7	㉠
(나) 수급자	24.3	18.3	21.9
(가)와 (나) 공동 수급자	㉡	13.1	11.6

$$* \text{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보 기>

ㄱ.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의 5배보다 크다.

ㄴ. (가)와 (나) 중 한 가지 제도만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ㄷ.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를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 이상이다.

ㄹ. 갑국 전체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제도만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B 지역에서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만 수급하는 사람의 수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MEMO

1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 갑국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비교

구분	(가)	(나)
공통점	㉠	
차이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함	㉡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인구 중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갑국 전체
(가)	36	32	34	34
(나)	13	㉢	14	12

*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이다.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 갑국은 A~C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A 지역 인구는 C 지역 인구의 2배이다.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에는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됨', ㉡에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함'이 적절하다.
- ② ㉢에 들어갈 값은 '11'이다.
- ③ A 지역의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갑국 전체의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와 같다.
- ④ A~C 지역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에서 가장 적다.
- ⑤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는 A~C 지역 중 B 지역에서 가장 크다.

MEMO

1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와 (나) 제도 중에서, (가)는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반면, (나)는 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표는 갑국의 (가), (나),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은 A~D 네 지역으로만 구성된다.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전체 지역
(가)	7	6	7	9	7
(나)	25	25	30	30	27
(다)	3	5	3	4	4

$$* \text{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다)는 (가)와 달리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B 지역의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전체 지역의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③ A 지역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급자 수는 C 지역의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2배보다 많다.
- ④ D 지역의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의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보다 적다.
- 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D 지역이 C 지역보다 많다.

MEMO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자료 1> 갑/을국의 전체 인구 대비 (가)~(다)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가)	(나)	(다)
갑국	60	40	15
을국	80	30	10

<자료 2> 갑/을국의 (가)~(다) 제도별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구분	(가)	(나)	(다)
갑국	30	0	120
을국	20	0	150

* (다)는 (가)와 달리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 전체 인구 총 수급액 = 전체 수급자 수 ×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다.
- ② 을국의 (가) 제도 수급자 수는 갑국의 (나) 제도 수급자 수의 2배이다.
- ③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평균 수급액 대비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평균 수급액의 비율은 을국이 갑국의 2배 이상이다.
- ④ 갑국에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전체 인구 총 수급액은 서로 같다.
- 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전체 인구 총 수급액은 갑국이 을국의 1.2배이다.

MEMO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 (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인구 중 (가), (나) 제도의 지역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전체 지역
(가)	12	14	12	11	12
(나)	28	28	30	33	30

* 갑국은 A~D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A 지역 인구는 C 지역 인구의 2배임.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C 지역 수급자 수는 D 지역 수급자 수보다 적다.
- ㄴ.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와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 중 최소 한 가지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인구의 수는 A~D 지역 중 D 지역에서 가장 많다.
- ㄷ.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D 지역 수급자 수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전체 지역 수급자 수보다 적다.
- ㄹ.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와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제도의 수급자 수 간 차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MEMO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전체 가구 수와 가구별 구성원에는 변동이 없음.)

<갑국의 빈곤 탈출률과 빈곤 진입률>

구분	t+5년	t+10년	t+15년
빈곤 탈출률	80	60	75
빈곤 진입률	20	10	25

* 빈곤 탈출률은 5년 전 빈곤층 가구 중 조사 연도에는 비빈곤층인 가구(빈곤 탈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빈곤 진입률은 5년 전 비빈곤층 가구 중 조사 연도에는 빈곤층인 가구(빈곤 진입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t년 갑국에서 전체 가구 중 빈곤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임.

- ① t+5년에 빈곤 진입 가구는 빈곤 탈출 가구보다 많다.
- ② 전체 가구 중 빈곤층 가구의 비율은 t년과 t+10년이 같다.
- ③ 주어진 기간 동안 빈곤층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④ 전체 가구 중 빈곤 탈출 가구의 수는 t+10년과 t+15년이 같다.
- ⑤ 주어진 연도 중 빈곤 탈출 가구 수와 빈곤 진입 가구 수의 차이는 t+5년이 가장 작다.

MEMO

1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다음은 우리나라 (가) 지역의 사회 보장 제도 A~C의 수급자 비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으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가) 지역의 A~C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단위: %)

t년				t+10년			
구분		A 제도 수급자	A 제도 비수급자	구분		A 제도 수급자	A 제도 비수급자
C 제도 수급자	B 제도 수급자	9	12	C 제도 수급자	B 제도 수급자	10	9
	B 제도 비수급자	11	7		C 제도 비수급자	B 제도 비수급자	8
C 제도 비수급자	B 제도 수급자	18	13	C 제도 비수급자		B 제도 수급자	15
	B 제도 비수급자	16	14		C 제도 비수급자	B 제도 비수급자	21

* (가) 지역의 총인구는 t년 대비 t+10년에 2배로 증가하였음.

- ① A와 달리 B는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② A 제도 수급자의 수는 t년과 t+10년이 같다.
- ③ A~C 중 한 가지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은 t년이 t+10년보다 높다.
- ④ t+10년 수급자 수 대비 비 수급자 수의 비는 A~C 중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가 가장 크다.
- ⑤ A~C 중 두 가지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은 t년보다 t+10년이 낮다.

MEMO

1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갑국의 t-10년 각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총 10분위로 나눈 후, 10년 뒤 각 분위에 속한 가구가 다른 분위로 이동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에 소속된 가구는 t-10년과 t년이 동일하다.

(단위: %)

분위	1	2	3	4	5	6	7	8	9	10
하향 이동	0	21.8	23.5	25.6	26.9	29.7	28.5	30.1	33.4	35.6
불변	58.2	53.2	50.1	48.8	47.5	49.6	46.1	44.0	46.2	64.4
상향 이동	41.8	25.0	26.4	25.6	25.6	20.7	25.4	25.9	20.4	0

<보 기>

- ㉠. 소득 수준은 1분위가 가장 낮고, 10분위가 가장 높다.
- ㉡. 하향 이동한 가구의 수는 분위가 상승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 상향 이동한 가구의 수는 1분위가 9분위의 2배보다 많다.
- ㉣. 전체 가구 대비 분위가 변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4~5분위가 6~7분위보다 높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MEMO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 이외의 제도는 고려하지 않음.)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다)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인구 중 (가), (나), (다)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가)	(나)	(다)
A 지역	남성	11.6	2.6	1.8
	여성	12.6	2.1	2.3
	전체	12.0	2.4	2.0
B 지역	남성	14.0	2.1	2.7
	여성	16.0	2.3	2.3
	전체	15.0	2.2	2.5

* A 지역의 총인구는 B 지역의 두 배임.

** 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남성(여성) 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상호 부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A 지역의 여성 수급자 수는 남성 수급자 수보다 많다.
- ㄴ.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진 제도의 경우, 여성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 ㄷ.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A 지역 남성 수급자 수는 B 지역 전체 수급자 수보다 많다.
- ㄹ. 여성의 경우,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 대비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의 비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작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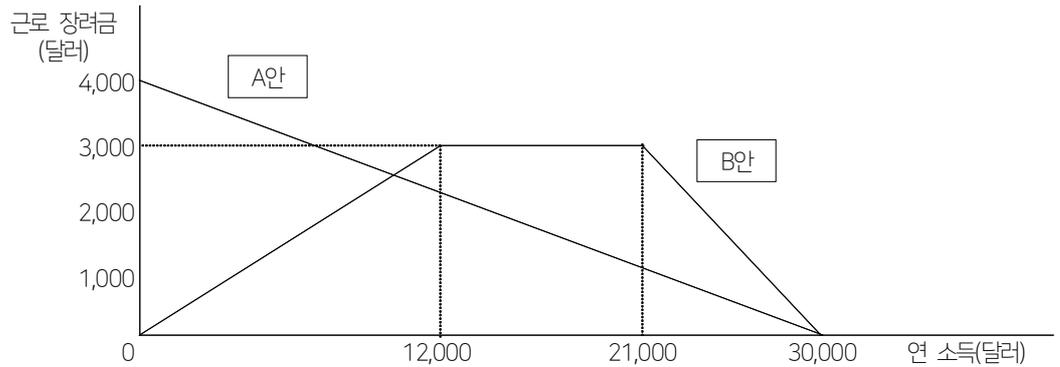
⑤ ㄴ, ㄷ, ㄹ

MEMO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은 정부가 조세로 전액 기금을 마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갑국이 도입을 고려중인 근로 장려금 제도는 A안과 B안이 있으며, 그림은 A안과 B안의 근로 장려금 지급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 ① A안에서 연 소득이 6,000달러인 가구의 근로 장려금은 3,200달러이다.
- ② B안에서 근로 장려금은 연 소득이 9,000달러인 가구보다 24,000달러인 가구가 적다.
- ③ 연 소득이 10,000달러인 가구의 근로 장려금은 A안보다 B안이 많다.
- ④ 연 소득이 15,000달러인 가구의 B안에서의 근로 장려금은 A안에서의 근로 장려금의 1.5배이다.
- ⑤ 갑국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갑국은 A안보다 B안의 도입을 선호할 것이다.

MEMO

2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갑국과 을국은 모두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분류한다.
- 갑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을국은 절대적 빈곤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 2021년에 갑국의 최저 생계비의 2배는 중위 소득과 같았으며, 갑국은 전체 가구의 30%, 을국은 전체 가구의 40%가 절대적 빈곤 가구였다.
- 갑국, 을국 모두 수급 자격 가구와 수급 가구는 일치한다.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갑국	수급 자격 상실 비율	40	20
	수급 자격 취득 비율	20	10
을국	수급 자격 상실 비율	30	40
	수급 자격 취득 비율	20	10

$$* \text{수급 자격 상실 비율}(\%) = \frac{\text{금년도 수급 자격 상실 가구 수}}{\text{전년도 수급 가구 수}} \times 100$$

$$** \text{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금년도 수급 자격 취득 가구 수}}{\text{전년도 비(非)수급 가구 수}} \times 100$$

*** 갑국과 을국 각각에서 전체 가구 수는 2020년 이후 변동이 없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① 을국은 갑국과 달리 선별적 복지의 이념에 부합하는 빈곤 대책을 채택하고 있다.
- ② 2020년 을국의 최저 생계비의 2배와 2021년 갑국의 중위 소득은 동일하다.
- ③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을국의 생계비 수급 가구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④ 2021년 갑국의 교육비 수급 가구 수는 2022년 을국의 생계비 수급 가구 수와 같다.
- ⑤ 2020년과 2021년 모두 갑국의 교육비 수급 가구 수 대비 비수급 가구 수의 비는 을국의 생계비 수급 가구 수 대비 비수급 가구 수의 비보다 크다.

MEMO

2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되지 않은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자료 1> 갑국의 공공 부조 지원 기준

구분	교육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생계 급여
중위 소득	50% 이하	○	×	×
	43% 이하	○	○	×
	40% 이하	○	○	×
	28% 이하	○	○	○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하였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자료 2> 갑국의 공공 부조 지원 대상 가구 현황

(단위: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5년 전 대비 전체 가구 수 변화율	0	-5	5	10
지원받는 급여가 한 가지인 가구 비율	10	8	10	9
지원받는 급여가 두 가지인 가구 비율	12	11	12	13
지원받는 급여가 세 가지인 가구 비율	9	11	10	9
지원받는 급여가 네 가지인 가구 비율	6	4	5	7

** 갑국은 2000년부터 5년 단위로 공공 부조 지원 가구를 조사함.

- ① 전체 가구 중 중위 소득 40% 초과 50% 이하인 가구 비율은 2020년이 2010년보다 높다.
- ② 공공 부조의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수는 2005년과 2015년이 같다.
- ③ 전체 가구 중 교육, 주거, 의료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비율은 2020년이 2010년보다 높다.
- ④ 교육, 주거 급여 두 가지만 지원받는 가구 수는 2020년이 2005년보다 많다.
- ⑤ 전체 가구 중 중위 소득 43% 이하인 가구 수는 제시된 연도 중 2010년에서 가장 적다.

MEMO

2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A, B 제도 중에서, B는 A와 달리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대비 각 제도별 수급자 비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의 상대적 크기							
갑국	A	■	■	■	■	■	■	■	■
	B	■	■	■	■	■	■	■	■
	C	■	■	■	■	■	■	■	■
을국	A	■	■	■	■	■	■	■	■
	B	■	■	■	■	■	■	■	■
	C	■	■	■	■	■	■	■	■

* 해당 국가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국가 수급자 수}}{\text{해당 국가 인구}} \times 100$

**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두 제도 간 수급자 비율의 차이는 갑국이 을국보다 16%p 크다.

*** 의 면적은 해당 제도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며, 각 의 면적은 동일하다.

- ① A는 사회 서비스, B는 공공 부조이다.
- ② 비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4% 높다.
- ③ 갑국의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을국의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와 같다.
- ④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와 달리,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갑국이 을국보다 적다.
- ⑤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는 갑국과 을국이 같다.

MEMO

2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은 절대적 빈곤을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로, 상대적 빈곤을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로 선정한다. 갑국은 국가중앙위원회에서 매년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갑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단, 주어진 기간 동안 갑국의 전체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갑국의 빈곤 관련 지표>

구분	최저 생계비 (월 소득)	중위 소득 (월 소득)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t년	㉠	3,000달러	8%	8%
t+1년	1,800달러	3,400달러	㉡	9%
t+2년	2,000달러	㉢	6%	7%

*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같으면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도 같다.

- ①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의 2.5배보다 크다.
- ② ㉡에 들어갈 값은 t년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보다 크다.
- ③ t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는 t+2년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보다 많다.
- ④ t+1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는 t년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보다 많다.
- ⑤ t+1년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 소득의 총합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전체 빈곤 가구 소득의 총합보다 많다.

MEMO

2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되지 않은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자료 1> 갑국 A, B 지역의 공공 부조 지원 기준

구분		지원 급여 종류			
월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교육			
	중위 소득 43% 이하	교육	주거		
	중위 소득 40% 이하	교육	주거	의료	
	중위 소득 28% 이하	교육	주거	의료	생계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하였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자료 2> 갑국 A, B 지역의 공공 부조 지원 대상 가구 현황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 비율	36.8	37.2	37.0
중위 소득 43% 이하 가구 비율	25.5	26.0	25.7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 비율	16.3	16.7	16.5
중위 소득 25% 이하 가구 비율	5.9	5.6	5.8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공공 부조 지원 대상 가구는 A, B 지역에서 각자 산출한다.

- ① 전체 가구 중 지원받는 급여가 한 가지인 가구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
- ②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 소득의 총합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 ③ 중위 소득 50% 이하의 경우와 달리 4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 ④ 전체 가구 중 지원받는 급여가 두 가지인 가구 수는 A 지역과 B 지역이 같다.
- ⑤ 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수 대비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수의 비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MEMO

2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에서 빈곤의 종류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만 존재함.)

갑국에서는 빈곤 가구의 유형 중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규정하는데, 전체 가구 중 각 가구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단, 갑국에서 가구별 구성원 수는 모든 연도에서 서로 같다.

(단위: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한 가지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6	0	10
두 가지 빈곤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18	20	15

* 중위 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 주어진 연도 중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낮은 연도의 상대적 빈곤 가구 대비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는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낮은 연도의 절대적 빈곤 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보다 작음.

<보 기>

- ㄱ. 전체 가구 중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20년이 2000년보다 높다.
- ㄴ. 201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의 총합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의 총합과 같다.
- ㄷ. 주어진 연도 중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보다 높은 연도는 한 연도뿐이다.
- ㄹ. 2020년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 소득 총합 대비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 소득 총합의 비율은 60% 이하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MEMO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며,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국가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나)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부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전년도 대비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변화율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A 지역	(가)	20	-40	40
	(나)	-20	50	-10
B 지역	(가)	0	20	20
	(나)	-20	25	10

* 조사 기간 동안 A 지역의 총인구는 B 지역의 2배로 유지되었다.

** 2021년 A 지역과 B 지역의 (가), (나) 수급자 비율은 모두 각각 25%, 4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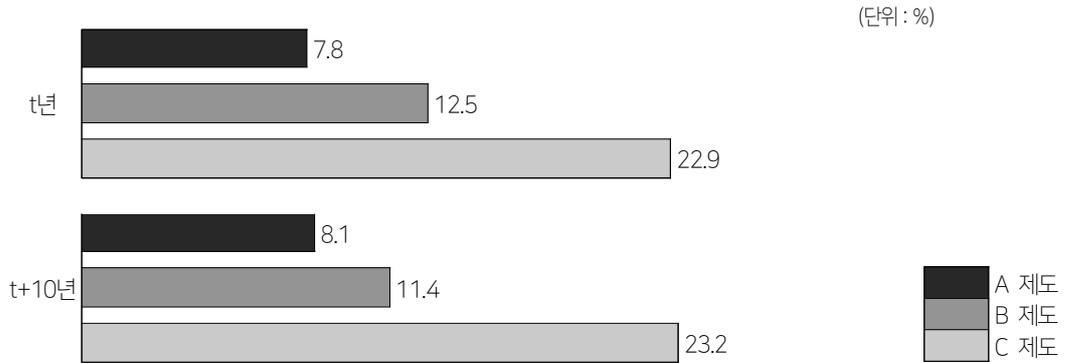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이다.
- ② 2022년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과 B 지역이 서로 같다.
- ③ 2020년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2021년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와 같다.
- ④ A 지역과 B 지역 모두에서 조사 기간 중 2022년에 (가) 제도와 (나) 제도 간 수급자 수 차이가 가장 크다.
- ⑤ B 지역의 2020년 대비 2022년 인구 증가율이 40%라면, 2022년 B 지역의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2020년 A 지역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급자 수와 같다.

2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다음 그림은 시기별 A~C 제도에 대한 갑국의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의 질문을 통해 구분할 수 없는 A, C 중에서, A는 C와 달리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A 제도 수급자 수는 t년이 t+10년보다 많다.



- ①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서비스이다.
- ②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t년 대비 t+10년 수급자 비율은 0.3% 증가하였다.
- ③ 비금전적 지원이 적용되는 제도의 t년 수급자 수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t+10년 수급자 수의 50%보다 많다.
- ④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이 t+10년보다 많다.
- ⑤ t년 대비 t+10년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가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보다 낮다.

MEMO

2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인구 중 (가), (나) 제도의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전체 지역
(가) 수급자	33		34
(나) 수급자	14	11	13
(가), (나) 공동 수급자		8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 음영이 있는 부분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알 수 있음.

*** A 지역의 (가), (나) 공동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비율은 전체 지역의 (가), (나) 공동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의 4배임.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보다 많다.
- ㄴ.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전체 지역 수급자 수보다 적다.
- ㄷ. B 지역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인구 수는 A 지역의 사 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인구 수보다 적다.
- ㄹ. (가), (나) 중 어떤 제도의 수급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구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MEMO

3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유형 A~C 중 B는 A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C는 A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가), (나) 지역의 모든 가구는 A~C 중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별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와 B의 중복 수혜 가구	8	10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15	12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48	54

* (가) 지역과 (나) 지역의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서로 같다.

** A, B, C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한 A, B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이다.

- ① B는 A, C와 달리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 ② A, B, C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한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가) 지역과 (나) 지역이 같다.
- ③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두 가지 제도만의 혜택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높다.
- ④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가) 지역 수혜 가구 비율의 최솟값은 (나) 지역 수혜 가구 비율의 최솟값보다 작다.
- 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의무 가입이 원칙인 제도와 달리 (나) 지역 수혜 가구 비율의 최댓값이 (가) 지역 수혜 가구 비율의 최댓값보다 크다.

MEMO

3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과 을국은 각각 7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국가 모두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으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으로 판정한다. 갑국과 을국 정부는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에 각각 다음과 같은 월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은 중복될 수 있다.

<자료 1> 갑국과 을국의 가구별 월 소득

(단위: 달러)

갑국	가구	A1	B1	C1	D1	E1	F1	G1
	월 소득	900	1,200	1,700	2,500	2,800	3,200	4,000
을국	가구	A2	B2	C2	D2	E2	F2	G2
	월 소득	800	1,000	1,200	2,400	2,700	3,300	3,600

<자료 2> 갑국과 을국의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

(단위: 달러)

구분		생활 지원금	의료 지원금	교육 지원금
갑국	절대적 빈곤 가구	500	300	
	상대적 빈곤 가구			400
을국	절대적 빈곤 가구	600		
	상대적 빈곤 가구		400	300

* 을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갑국의 1.5배이며, 모든 절대적 빈곤 가구 월 소득의 총합은 갑국이 을국의 70%이다.

** 가구 월 총소득: 월 소득 + 정부 지원금

- ① 갑국과 을국 모두 상대적 빈곤에 속하지 않고 절대적 빈곤에만 속하는 가구가 있다.
- ② 을국의 절대적 빈곤선은 갑국의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다.
- ③ 상대적 빈곤 가구 소득의 총합이 전체 가구 소득의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높다.
- ④ 갑국의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총합은 을국의 80%이다.
- ⑤ 정부 지원에 따른 가구 월 총소득 역전 현상으로 인한 복지병 발생의 위험은 을국보다 갑국에서 더 크다.

MEMO

3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국민연금 제도와 기초연금 제도 중 하나임.)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갑국은 (가)~(다)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가)~(다) 지역별 인구 중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만의 수급자 수는 (나) 지역과 (다) 지역이 같다.

(단위: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전체 지역
A 수급자	21	22	24	22
B 수급자	12	14	Ⓛ	13
A와 B 공동 수급자	Ⓛ	10	5	7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가) 지역의 A와 B 공동 수급자를 제외한 A 수급자 비율은 (다) 지역의 A와 B 공동 수급자를 제외한 B 수급자 비율의 2배이다.

<보 기>

- ㄱ. Ⓛ은 Ⓛ의 3배보다 크다.
- ㄴ.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가) 지역이 (다) 지역보다 많다.
- ㄷ. A, B 두 제도의 수급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은 (가)~(다) 지역 중 (나) 지역에서 가장 높다.
- ㄹ.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만의 수급자 수 대비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만의 수급자 수의 비는 (가)~(다) 지역 중 (가) 지역에서 가장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MEMO

3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을 제외한 사회 보장 제도는 고려하지 않음.)

표는 갑국의 A 지역과 B 지역의 전체 인구 중 국민 연금 수급자 비율과 기초 연금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A, B 지역의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서로 같으며, 기초 연금과 국민 연금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 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국민 연금 수급자	남성	65	45
	여성	50	55
	전체		
기초 연금 수급자	남성	15	20
	여성	30	30
	전체	20	25
기초 연금과 국민 연금 중복 수급자			

* 음영이 있는 부분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알 수 있음.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전체 인구 대비 국민 연금의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낮다.
- ② 전체 인구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 ③ 여성 인구 중 보편적 복지의 이념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남성 인구 중 선별적 복지의 이념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크다.
- ④ 전체 인구 중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 대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강한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의 비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보다 크다.
- ⑤ 두 제도를 모두 수급하는 남성 인구가 최댓값을 가지는 경우 두 제도를 모두 수급하는 여성 인구는 A 지역과 B 지역이 같다.

MEMO

3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며,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와 (나) 제도 중에서, (가)는 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반면, (나)는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표는 갑국의 (가)~(다) 제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은 A, B 두 지역으로만 구성된다.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전체
(가), (나) 공동 수급자	25	30	㉠
(나), (다) 공동 수급자	30	㉡	24
(가), (다) 공동 수급자	㉢	15	13
(가), (나), (다) 비 수급자	25	15	19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A, B 지역의 (가), (나), (다) 공동 수급자 수는 같다.

*** (가), (나) 공동 수급자 중 (다) 비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2배이다.

- ① ㉡과 ㉢의 합은 ㉠보다 크다.
- ② (나), (다) 제도 공동 수급자 중 (가)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구는 A 지역과 B 지역이 같다.
- ③ (가), (나), (다) 중 한 가지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인구의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2배이다.
- ④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의 최댓값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크다.
- ⑤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최솟값은 B 지역이 A 지역의 1.5배이다.

MEMO

3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중 하나임.)

<자료 1> 각 지역 A의 빈곤선 - B의 빈곤선의 값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A의 빈곤선 - B의 빈곤선의 값	-	+	0

<자료 2> 각 지역 A, B에 관한 가구 수치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A, B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가구 수	5만 명	㉠	
A, B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	10%	15%	㉡

* 절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A와 B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다르면 A와 B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도 다르다.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보 기>

- ㄱ. A가 상대적 빈곤이라면, (나) 지역과 달리 (가) 지역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 ㄴ. B가 절대적 빈곤이고 (가) 지역의 전체 인구가 50만 명이라면, (가) 지역의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와 같다.
- ㄷ. ㉠에 들어갈 값에 상관없이 A, B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가구 수는 (가)~(다) 지역 중 (다) 지역이 가장 적다.
- ㄹ. ㉡에 들어갈 값이 5만 명 이상이라면, (나) 지역의 빈곤 가구 수는 (가) 지역의 빈곤 가구 수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MEMO

3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가)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나)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다)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지역
(가) 수급자	57	50	㉠	53
(나) 수급자	47	44	38	44
(다) 수급자	8	㉡	8	13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갑국은 A~C 지역으로만 구성된다.

*** (다)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인구는 B 지역이 A 지역의 5배이다.

<보 기>

- ㄱ. ㉠은 ㉡의 3배보다 크다.
- ㄴ.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2배 이상이다.
- ㄷ.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C 지역 수급자 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 ㄹ. 금전적 지원이 적용되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비율은 C 지역 수급자 비율보다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MEMO

3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나)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지역
(가) 수급자	45	42	47	45
(나) 수급자	21	18	25	㉠
(가)와 (나) 중복 수급자	9	㉡	13	㉢

* 갑국은 A~C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 A, B, C 지역의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를 제외한 (나) 수급자 수의 비는 각각 2:3:6이다.

- ① ㉡과 ㉢의 합은 ㉠보다 크다.
- ②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2배이다.
- ③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의 비율은 A~C 지역 중 A 지역이 가장 높다.
- ④ (가)와 (나) 중 어떤 제도의 수급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수는 C 지역이 A 지역의 3배보다 적다.
- ⑤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만 수급하는 사람의 수 대비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만 수급하는 사람의 수의 비는 A~C 지역 중 B 지역이 가장 작다.

MEMO

38

표는 갑국 국민들의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참 또는 거짓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위: %)

구분		㉠ 국민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부담됨	보통임	부담 안 됨	부담됨	보통임	부담 안 됨
전체		64.5	33.7	1.8	60.8	25.9	13.3
성별	남성	65.0	33.3	1.7	60.4	26.7	12.9
	여성	64.0	34.1	1.9	61.2	25.1	13.7
직업별	전문직	59.2	37.2	3.6	54.1	30.2	15.7
	사무직	61.7	35.8	2.5	57.4	28.4	14.2
	서비스직	67.4	31.4	1.2	60.6	30.7	8.7
	기능직	70.1	29.1	0.8	65.3	28.5	6.2

*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한 응답자와 국민 연금에 대한 응답자는 같다.

<보 기>

- ㄱ. ㉠에 '보통임'이라 응답한 사람은 남성이 여성보다 적다.
- ㄴ. ㉡에 '부담됨'이라 응답한 여성은 '부담 안 됨'이라 응답한 남성의 5배보다 적다.
- ㄷ. ㉠과 달리 ㉡에 대해 '보통임'이라 응답한 사람보다 '부담됨'이라 응답한 사람이 두 배 이상인 직업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기능직 중 두 개이다.
- ㄹ. ㉠과 달리 ㉡에 대해 '부담 안 됨'이라 응답한 사람은 전문직이 가장 많고 기능직이 가장 적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MEMO

3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A, B 두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가)~(다)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다)의 사례

- (가)의 사례: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 급여 실시
- (나)의 사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 급여 제공
- (다)의 사례: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자료 2>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다)의 수급자 현황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가) 수급자	56		54
(나) 수급자		26	30
(다) 수급자	20	23	
(가)와 (나) 중복 수급자	14	11	13
(나)와 (다) 중복 수급자	6		7
(가)와 (다) 중복 수급자		12	10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 (가), (나), (다)를 모두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의 2배이고, (가)와 (다)만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이다.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사회 서비스만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A 지역과 B 지역이 같다.
- ② (가)~(다) 중 두 가지 제도만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보다 적다.
- ③ (가)~(다) 중 어떤 제도도 수급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의 75%이다.
- ④ B 지역에서 공공 부조를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A 지역에서 공공 부조만 수급하는 사람의 수보다 많다.
- ⑤ (가)~(다) 중 한 가지 제도만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의 90% 이상이다.

MEMO

4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와 (나) 제도 중에서 (가)는 (나)와 달리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료 1>은 갑국의 조사 연도에 따른 지역별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자료 2>는 갑국의 이전 조사 연도 대비 A, B 지역 전체 인구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자료 1> 갑국의 조사 연도에 따른 지역별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t-20년	t-10년	t년
(가)	A 지역	8.0	7.5	9.2
	전체	7.6	7.7	9.0
(나)	B 지역	23.8	31.0	27.5
	전체	24.4	32.8	25.5

<자료 2> 갑국의 이전 조사 연도 대비 A, B 지역 전체 인구 변화율

(단위: %)

구분		t-10년	t년
전체 인구 변화율	A 지역	20	100
	B 지역	-20	50

$$* \text{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t-20년 A 지역과 B 지역의 전체 인구는 서로 같다.

- ① t년 A 지역의 인구는 t-10년 B 지역의 3배이다.
- ② A 지역의 (나) 제도 수급자 수는 t-10년이 t년보다 많다.
- ③ B 지역의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이전 조사 연도와의 수급자 비율 차이는 t년이 t-10년보다 크다.
- ④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t-20년 A 지역 수급자 수는 t-10년 B 지역 수급자 수의 125%이다.
- 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t-10년 A 지역 수급자 수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t년 B 지역 수급자 수의 4배 미만이다.

MEMO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유형 중 A~C 중 A는 B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B는 C와 달리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다음 자료는 갑국에서 각 제도의 지역별 중복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갑국 전체
A와 B의 중복 수급 가구	40	㉠	41	39
A와 C의 중복 수급 가구	11	12	14	12
B와 C의 중복 수급 가구	7	10	11	9
A, B, C 비수급 가구	15	18	㉡	17

* (가), (나), (다) 지역의 A, B, C 중복 수급 가구 비율의 비는 각각 2:2:1이다.

** (가), (나) 지역의 A, B, C 중복 수급 가구를 제외한 B, C 중복 수급 가구 수의 비는 1:2이다.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의 2배이다.
- ② (나) 지역의 A, B, C 중복 수급 가구를 제외한 A, C 중복 수급 가구의 수는 갑국 전체의 A, B, C 중복 수급 가구 수와 같다.
- ③ A, B, C 비수급 가구의 수는 (다) 지역이 (나) 지역보다 많다.
- ④ (가)~(다) 지역 중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한 가지 제도만의 혜택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나) 지역에서 가장 낮다.
- ⑤ (가)~(다) 지역 중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두 가지 제도만의 혜택을 받는 가구의 수는 (다) 지역에서 가장 적고, (나) 지역에서 가장 많다.

4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부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나) 국가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인구 중 (가), (나), (다)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전체 지역
(가) 수급자	16	㉠	12
(나) 수급자	12	㉡	㉢
(가)와 (나) 공동 수급자	㉣	2	4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된다.

** B 지역의 (가) 제도 단독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의 (가) 제도 단독 수급자 비율과 같고, 해당 비율은 B 지역의 (나) 제도 단독 수급자 비율의 2배이다.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과 ㉡의 합은 ㉢과 ㉣의 합과 같다.
- ②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만의 수급자 수는 A 지역과 B 지역이 같다.
- ③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
- ④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 ⑤ 선별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전체 지역 수급자 수는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적다.

MEMO

4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은 연도에 따른 갑국의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상층 인구 비율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은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자료 2>는 연도에 따른 갑국의 계층별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자료 1> 연도에 따른 갑국의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상층 인구 비율의 비

구분	t년	t+10년
하층 인구 비율 대비 상층 인구 비율의 비	1	0.5

<자료 2> 연도에 따른 갑국의 계층 인구별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상층 인구	중층 인구	하층 인구	전체 인구
t년	(가) 제도	35	㉠	29	32
	(나) 제도	14	8	9	11
t+10년	(가) 제도	34	35	38	36
	(나) 제도	9	㉡	11	11

* t년과 t+10년의 갑국 전체 인구는 서로 같다.

** 갑국 중층 인구의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 수급자 수는 t+10년이 t년의 1.5배이다.

*** 해당 계층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계층 수급자 수}}{\text{해당 계층 인구}} \times 100$

- ①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의 3배보다 작다.
- ② t년 중층 인구와 t+10년 하층 인구는 같다.
- ③ t년 상층 인구 중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 수급자 수는 t+10년 하층 인구 중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 수급자 수의 2배보다 많다.
- ④ t+10년 상층 인구 중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 중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수급자 수의 12%이다.
- ⑤ 중층 인구 중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보다 t+10년이 많다.

MEMO

2. 다양한 불평등

#44~#50 Lev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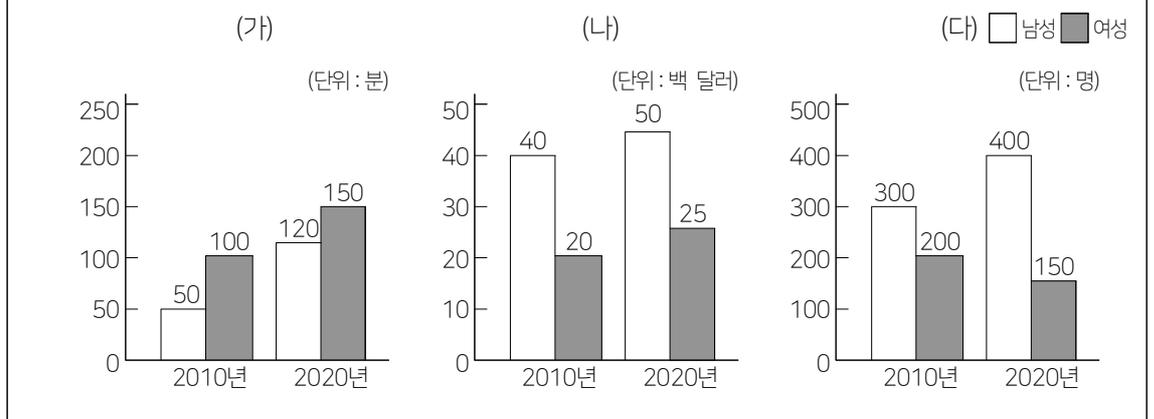
#51~#60 Level 2

#61~#68 Level 3

#69~#72 Level 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갑국의 성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가)는 맞벌이 부부의 1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나)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을, (다)는 고위 공직자 수를 성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 ① (가)는 갑국에서 성별 가사 부담 차이가 완화되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 ② (가)에서 2010년 대비 2020년 1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의 증가율은 남성이 남·여성 전체보다 작다.
- ③ (나)에서 2010년의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정규직 월평균 임金の 비는 2020년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정규직 월평균 임金の 비과 같다.
- ④ (다)에서 2020년 고위 공직자 수의 남성과 여성 간 차이는 2010년 고위 공직자 수의 남성과 여성 간 차이의 150%이다.
- ⑤ (다)는 (가)와 같이 가정적 측면의 성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다.

4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갑국의 지역별 '상대적 평균 임금'을 지역별·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지역별 상대적 평균 임금은 A 지역 남성(여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다른 지역의 남성(여성)평균 임금의 크기를 나타낸다. 단, t년 A 지역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20이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남성	100	120	90	150
여성	100	140	80	110

$$* \text{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평균 임금} - \text{여성 평균 임금}}{\text{남성 평균 임금}} \times 100$$

<보 기>

- ㄱ. B 지역에서 남성 평균 임금은 여성 평균 임금보다 적다.
- ㄴ. A 지역 여성 평균 임금은 D 지역 남성 평균 임금의 50% 이상이다.
- ㄷ. B 지역 남성 평균 임금 대비 C 지역 여성 평균 임금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 ㄹ. A~D 지역 중 여성 평균 임금이 B 지역 남성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은 지역은 한 지역뿐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MEMO

4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기간 동안 갑국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항상 같음.)

<갑국의 근로자 평균 임금 실태 조사 결과>

구분	t-10년	t년	t+10년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만 원)	275	330	420
성별 임금 격차 지수	20	20	10

$$* \text{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text{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text{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times 100$$

- ① t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t-10년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많다.
- ② t-10년 대비 t년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여성 근로자와 전체 근로자가 같다.
- ③ t+10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90%이다.
- ④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율은 t년이 t+10년보다 높다.
- ⑤ 주어진 연도 중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간 차이는 t-10년에 가장 적다.

MEMO

4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에서 노동 중인 갑국 출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갑국에서 노동 중인 노동자 유형별 평균 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단, 주어진 기간 동안 갑국 출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분	2019년	2021년	2023년
갑국 출신 남성 노동자	150	170	140
을국 출신 남성 노동자	80	100	120
을국 출신 여성 노동자	70	60	80

- ① 갑국 출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2023년이 2019년보다 적다.
- ② 을국 출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비율은 2021년이 2023년보다 크다.
- ③ 2023년에 갑국 출신 노동자의 성별 평균 임금 차이와 을국 출신 노동자의 성별 평균 임금 차이는 같다.
- ④ 2년 전 대비 을국 출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증가액은 2021년과 2023년이 같다.
- ⑤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출신 국가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보다 크다.

MEMO

4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단위: 달러)

구분		t년	t+10년	t+20년
전체	비정규직	2,000	2,200	2,500
	정규직	2,500	2,800	3,000
여성	비정규직	1,800	2,200	2,400
	정규직	2,200	2,600	2,800

* 주어진 모든 연도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남성 근로자 수:여성 근로자 수는 모두 1:1이다.

- ① t+10년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과 같다.
- ② t년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여성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과 같다.
- ③ 10년 전 대비 남성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증가율은 t+10년과 t+20년이 같다.
- ④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대비 남성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비는 t년이 t+20년보다 크다.
- ⑤ t+10년 대비 t+20년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액은 남성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액의 2배이다.

MEMO

표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

<갑국의 성차별 지수 변화>

구분	문화생활	경제 활동	교육 및 직업 훈련	안전 및 복지	가족 내 의사 결정 및 가사 분담	국가 및 기업 내 의사 결정
2010년	12.6	28.3	3.8	15.6	35.4	57.4
2020년	11.9	31.2	1.9	16.8	27.6	54.3

* 성차별 지수는 분야별 남성의 수준이 100이라고 할 때 남성의 수준 대비 남성의 수준과 여성의 수준의 차의 비를 가리킴.

- ① '문화생활' 분야와 달리 '경제 활동' 분야에서 2010년 대비 2020년 성차별 정도는 증가하였다.
- ② 성차별 지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2010년과 2020년이 동일하다.
- ③ 2010년과 2020년 모두 성차별 지수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남성의 수준 대비 여성의 수준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 ④ '안전 및 복지' 분야와 달리 '가족 내 의사 결정 및 가사 분담' 분야에서 여성의 수준은 2010년 대비 2020년 상승하였다.
- ⑤ 2010년과 2020년의 양성평등 지수는 양성평등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위 공직자나 기업의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MEMO

5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갑국의 t년과 t+10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와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단,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과 전체 근로자 수 모두 t년과 t+10년에서 서로 같다.

구분	t년	t+10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	0.8	0.7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수의 비	0.5	0.4

$$* \text{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 \frac{\text{성별 근로자 총임금}}{\text{성별 근로자 수}}$$

<보 기>

- ㄱ. 여성 근로자 수는 t년이 t+10년의 125%이다.
- ㄴ.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t년과 t+10년이 같다.
- ㄷ. 여성 근로자 총임금은 t년이 t+10년의 1.5배보다 많다.
- ㄹ. 남성 근로자 총임금은 t+10년이 t년보다 적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MEMO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A 기업의 10년 전 대비 성별 근로자 총임금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A 기업에서 남성 근로자 수는 항상 여성 근로자 수보다 많으며, 2000년에 남성 근로자 총임금은 여성 근로자 총임금의 1.2배이다.

(단위: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남성 노동자 총임금 상승률	20	25	30
여성 노동자 총임금 상승률	25	50	40

* 남(여)성 노동자 총임금 = 남(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 남(여)성 노동자 수

<보 기>

- ㄱ. 남성 근로자 총임금과 여성 근로자 총임금 간 차이는 1990년과 2000년이 같다.
- ㄴ. 2000년 대비 2020년 남성 근로자 총임금 상승률은 여성 근로자 총임금 상승률의 0.5 배보다 높다.
- ㄷ. 1990년 대비 2010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보다 높다.
- ㄹ. 제시된 연도 중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크지 않은 연도는 한 연도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사회학자 A는 성별 임금 격차 지수와 성별 교육 격차 지수를 개발하여 갑~병국의 성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림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별 교육 격차 지수는 사회적 측면에서 성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단, 갑~병국의 지수별 분석 대상 성비는 모두 남성 3 : 여성 2이다.

구분	갑국	을국	병국
성별 임금 격차 지수	50	30	20
성별 교육 격차 지수	40	40	10

$$* \text{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text{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text{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times 100$$

$$** \text{성별 교육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평균 교육 연수} - \text{여성 평균 교육 연수})}{\text{전체 평균 교육 연수}} \times 100$$

- ①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차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②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을국이 병국보다 크다.
- ③ 갑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는 을국의 여성 평균 교육 연수의 1.5배 이상이다.
- ④ 갑국과 달리 병국에서 여성 근로자 총임금은 전체 근로자 총임금의 40% 이상이다.
- ⑤ 병국과 달리 을국에서 남성 총 교육 연수는 여성 총 교육 연수의 2배를 초과한다.

MEMO

5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갑~병국의 전체 근로자 총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총임금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단, 갑~병국의 남성 근로자 총임금과 전체 근로자 수는 모두 같고 남성 근로자 수:여성 근로자 수의 비는 모두 2:3이다.

구분	갑국	을국	병국
$\frac{\text{여성 근로자 총임금}}{\text{전체 근로자 총임금}}$	$\frac{1}{3}$	$\frac{3}{5}$	$\frac{1}{2}$

<보 기>

- ㄱ. 갑국과 병국의 여성 근로자 총임금의 합은 을국의 여성 근로자 총임금과 같다.
- ㄴ. 병국의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을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크다.
- ㄷ. 갑~병국 중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큰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 ㄹ. 갑~병국 중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이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크지 않은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④ ㄴ, ㄷ

- ② ㄱ, ㄷ
- ⑤ ㄷ, ㄹ

- ③ ㄱ, ㄹ

MEMO

5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학자 갑은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를 개발하며 A~C 지역의 성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가 100보다 작은 경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존재하고,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차별 정도가 심하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	80	110	90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수의 비	0.6	1.2	0.8

*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 =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 중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율 /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 × 100

**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 성별 근로자 임금 총액 / 성별 근로자 수

<보 기>

- ㄱ.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은 A~C 지역 중 두 지역에서 존재한다.
- ㄴ. B 지역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은 C 지역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과 동일하다.
- ㄷ. A~C 지역 중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이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의 3배 이상인 지역이 존재한다.
- ㄹ. A~C 지역 중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MEMO

5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의 직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됨.)

다음은 갑국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대비 성별·직종별 근로자 평균 임금을 나타낸 표이다. 갑국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성별·직종별 근로자 평균 임금은 갑국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성별·직종별 근로자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성	116	100	108
여성	98	70	84
전체	㉠	90	100

* 성별 근로자 임금 총액 = 성별 근로자 수 ×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 직종별 근로자 임금 총액 = 직종별 근로자 수 × 직종별 근로자 임금 총액

<보 기>

- ㄱ. ㉠에 들어갈 값은 115보다 작다.
- 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수는 정규직 남성 근로자 수의 0.5배이다.
- ㄷ.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은 정규직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보다 많다.
- ㄹ.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은 정규직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의 5배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MEMO

5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을국 남성·여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t-10년		t년		t+1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남성 근로자		320	350			350
여성 근로자	250			300	300	
전체 근로자	275	310	335	300	310	320

* 주어진 기간 동안 갑국은 남성 근로자 수가 여성 근로자 수보다 많으며, 을국은 여성 근로자 수가 남성 근로자 수보다 많다.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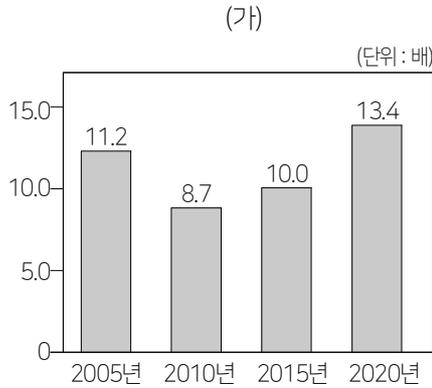
- ① t-10년에 갑국 남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을국 여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적다.
- ② 갑국에서 t년 여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t+10년 남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같다.
- ③ 을국에서 여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t년이 t+10년보다 많다.
- ④ 남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여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차는 t+10년 을국이 t-10년 갑국보다 크다.
- ⑤ 갑국에서 t-10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수의 비율이 37.5%라면, t-10년 대비 t년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남성 근로자와 전체 근로자가 같다.

MEMO

57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자료는 연구자 갑이 A국 주요 기업의 성별 사내이사 현황과 유형별 사내이사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가)는 여성 사내이사 수 대비 남성 사내이사 수의 비율 나타낸 자료이며, (나)는 여성 사내이사 중 각각의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가)



(나) (단위: %)

구분	A 유형	B 유형	C 유형
2005년	71.2	25.3	3.5
2010년	69.3	24.2	6.5
2015년	67.5	23.3	9.2
2020년	64.6	22.1	12.3

* A 유형 : 지배 주주(오너) 일가인 경우
 ** B 유형 : 대주주(투자자)와 관련된 경우
 *** C 유형 :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스카우트된 경우

< 보 기 >

- ㄱ. 주어진 연도 중 전체 사내이사 대비 여성의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연도는 한 연도 뿐입니다.
- 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 내 성 불평등 현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ㄷ. 주어진 기간 동안 B 유형의 여성 사내이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ㄹ. 여성의 경우 사내이사의 지위를 얻는 데 가정 배경보다 개인의 노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MEMO

5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사회학자 갑은 성 불평등 지수와 지역 불평등 지수를 개발하여 갑국 각 권역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음은 갑이 두 지수를 통해 갑국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단, 성별은 남성과 여성, 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만 구분하며, 갑국은 A 권역과 B 권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각 권역의 지수별 분석 대상 비율은 모두 1:1이다.

구분	A 권역	B 권역	갑국
성 불평등 지수	㉠	50	40
지역 불평등 지수	30	20	24

* 성 불평등 지수 = $\{(\text{전체 남성 임금} - \text{전체 여성 임금}) / \text{전체 국민 임금}\} \times 100$

** 지역 불평등 지수 = $\{(\text{전체 도시 거주민 임금} - \text{전체 농촌 거주민 임금}) / \text{전체 국민 임금}\} \times 100$

- ① ㉠에 들어갈 값은 30 이상이다.
- ② 갑국의 전체 남성 임금은 전체 여성 임금의 2배 이하이다.
- ③ B 권역의 전체 도시 거주민 임금은 갑국의 전체 농촌 거주민 임금보다 많다.
- ④ A 권역의 전체 남성 임금은 A 권역의 전체 도시 거주민 임금보다 많다.
- ⑤ B 권역의 전체 국민 임금은 갑국의 전체 여성 임금의 2배이다.

MEMO

59

표는 갑국과 을국의 근로 분야에서의 성차별 유무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응답자 수는 동일함.)

(단위: %)

구분		갑국	을국
성차별 유무에 관한 인식	존재하지 않음	20	30
	존재함	80	70
	급여	55	50
	근속 가능성	15	10
	채용 과정	10	15
	성차별적 문화	5	15
	기타	15	10

<보 기>

- ㄱ.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 '급여'에 응답한 사람의 수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이다.
- ㄴ. '근속 가능성'에 응답한 사람의 수는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 ㄷ.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 '채용 과정'에 응답한 사람의 수는 '기타'에 응답한 사람의 수보다 많다.
- ㄹ. '성차별적 문화'에 응답한 사람의 수는 을국이 갑국의 3배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MEMO

6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는 갑국의 임금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t년과 t+50년의 성별 및 고용 형태별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이다. 갑국에서 남성 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t+50년이 t년의 1.5배이며, t년과 t+50년 모두 (남성 정규직 노동자 수):(여성 정규직 노동자 수):(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수):(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수) = 2:1:1:2이다. 단, 갑국의 직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되며, t년과 t+50년의 갑국 전체 노동자 수는 같다.

구분		t년	t+50년
남성 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여성 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		70	75
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	전체	㉠	㉡
	남성	77	75
	여성	80	60

* 남성(여성) 노동자 임금 총액 = 남성(여성) 노동자 수 × 남성(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 ①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보다 크다.
- ② t년 남성 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t+50년 여성 정규직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보다 적다.
- ③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t+50년이 t년의 1.5배 미만이다.
- ④ t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총액은 t+50년 여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 총액보다 많다.
- ⑤ t+50년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 총액은 t년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보다 많다.

MEMO

6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성별에 따른 임금 수준의 차이는 '임금 성비' 라는 지표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임금 성비는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 100' 으로 계산한다. 표는 갑국의 성별에 따른 업종별 월 평균 임금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단, 주어진 기간 동안 A~C 업종 모두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서로 같다.

(단위: 달러)

구분	A 업종		B 업종		C 업종		전체 업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t년	1,000	900	1,200	900	800	500	1,000	800
t+10년	㉠	1,000	1,500	1,300	1,600	㉡	1,400	1,200

* 성별 평균 임금 = (성별 총임금 / 성별 근로자 수)

** t년 대비 t+10년 A 업종과 C 업종의 근로자 수는 동일하며, B 업종의 근로자 수는 100% 상승하였다.

- ①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보다 크다.
- ② t+10년 B 업종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t년 C 업종의 2배 이상이다.
- ③ t년 A~C 업종 중 전체 업종에 비해 임금 성비가 낮은 업종은 두 개이다.
- ④ A~C 업종 중 t년 대비 t+10년에 임금 성비가 증가한 업종은 한개이다.
- ⑤ A~C 업종 중 t+10년 남성 근로자 총임금이 t년 전체 근로자 총임금보다 많은 업종은 두 개이다.

6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연구자 갑이 A국 XX기업 노동자의 월급 구간에 따른 성별 평균 연봉과 노동자 성비를 조사한 것이다. 단, XX기업의 월급은 1구간에서 시작하며 근무 기간에 비례한다.

월급 구간		평균 월급(만 원)			노동자 성비
		남성	여성	전체	
1구간	2백만 원 미만	㉠	150	155	50
2구간	2백만 원 이상 4백만 원 미만	320	㉡	310	100
3구간	4백만 원 이상 6백만 원 미만	525	500	㉢	150
4구간	6백만 원 이상 8백만 원 미만	750	720	740	㉣
5구간	8백만 원 이상	960	940	㉤	300

* 노동자 성비: 여성 노동자 100명당 남성 노동자의 수

< 보 기 >

- ㄱ. ㉠과 ㉡과 ㉢의 합은 ㉣보다 작다.
- ㄴ. 1~3구간의 여성 노동자 수가 모두 서로 같다면, ㉣은 6백만 원 미만 월급 구간의 노동자 성비의 2배이다.
- ㄷ.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 ㄹ. 1구간과 2구간 남성 노동자 수가 같다면, 3구간의 여성 평균 월급은 4백만 원 미만 월급 구간의 2배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MEMO

6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연구자 갑은 A~C 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비 불균형'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성비 불균형은 전체 인원 중 남성의 구성 비율과 여성의 구성 비율 간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성비 불균형은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성비 불균형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자료 1> A~C 지역 성별 노동자 평균 임금

(단위: 만 원)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320	370	360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260	㉠	280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300	350	330

<자료 2> A~C 지역 노동자 성비 불균형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성비 불균형	㉡	20	㉢

$$* \text{성비 불균형} = \frac{(\text{남성 수} - \text{여성 수})}{(\text{남성 수} + \text{여성 수})} \times 100$$

$$** \text{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 \text{성별 근로자 임금 총액} / \text{성별 근로자 수}$$

<보 기>

- ㄱ.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보다 작다.
- ㄴ. ㉢에 들어갈 값은 A 지역과 C 지역을 합친 지역의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작다.
- ㄷ. C 지역 전체 노동자 임금 총액은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의 1.5배 미만이다.
- ㄹ. A 지역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이 B 지역 여성 노동자 임금 총액과 같다면, B 지역 남성 노동자 수는 A 지역 여성 노동자의 3배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MEMO

6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 표는 연구자 갑이 A국 ◇◇기업 직원의 연봉 구간에 따른 성별 분포와 여성비를 조사한 것이다. 단, ◇◇기업의 연봉은 1구간에서 시작하며 근무 기간에 비례한다.

연봉 구간		구성 비율(%)		여성비
		여성	남성	
1구간	2천만 원 미만	12	6	①
2구간	2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50	31	0.81
3구간	4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20	29	0.34
4구간	6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12	14	0.43
5구간	8천만 원 이상	6	20	②
전체		100	100	0.50

* 여성비 = $\frac{\text{여성 수}}{\text{남성 수}}$

** 여성비는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 ① 4구간의 여성 직원 수는 5구간의 여성 직원 수보다 적다.
- ②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와 같다.
- ③ ①은 4구간 여성비의 2배보다 크다.
- ④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다.
- ⑤ 2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하 연봉 구간의 여성비는 ②의 4배보다 크다.

MEMO

6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연도별로 갑국 남성/여성 노동자의 고용률, 전년 대비 월평균 근로 시간 변화율, 전년 대비 시급 평균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2020년 남성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 시간은 여성 노동자와 같으며, 남성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여성 노동자의 120%이다. 단, 여성 노동자 수는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서로 같다.

구분		노동자 성비	전년 대비 월평균 근로 시간 변화율(%)	전년 대비 평균 시급 변화율(%)
2020년	남성	80		
	여성			
2021년	남성	100	-10	25
	여성		20	20
2022년	남성	120	20	20
	여성		-10	25

* 평균 시급 = $\frac{\text{노동자 평균 월급}}{\text{노동자 월평균 근로 시간}}$

** 노동자 성비: 여성 노동자 100명당 남성 노동자의 수

*** 노동자 총합 근로 시간 = 노동자 월평균 근로 시간 × 노동자 수 × 12

**** 노동자 총임금 = 노동자 총합 근로 시간 × 평균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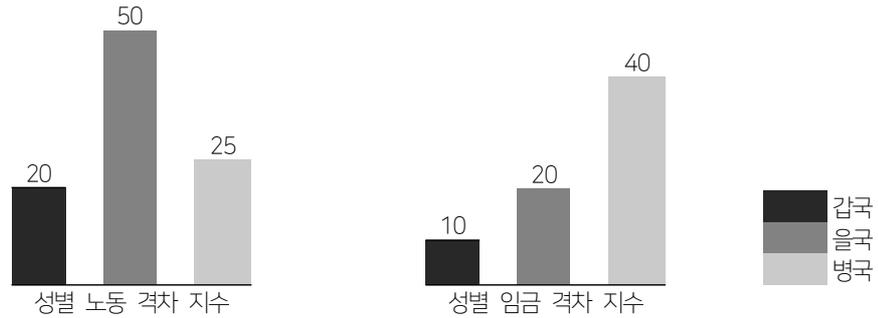
- ① 제시된 기간 중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보다 많지 않은 연도는 한 연도뿐이다.
- ② 남성 노동자 평균 월급은 2020년과 2021년이 같다.
- ③ 2020년 대비 2021년 노동자 총합 근로 시간의 증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 ④ 2020년 노동자 총임금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 ⑤ 2021년 대비 2022년 노동자 총임금 상승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MEMO

6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사회학자 갑은 성별 고용 격차 지수와 성별 임금 격차 지수를 개발하여 갑~병국의 성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림의 성별 고용 격차 지수는 노동적 측면에서,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 성별 노동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근로자 수} - \text{여성 근로자 수})}{\text{전체 근로자 수}} \times 100$

** 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text{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text{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times 100$

***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 $\frac{\text{성별 근로자 임금 총액}}{\text{성별 근로자 수}}$

- ① 갑국의 여성 근로자 수는 남성 근로자 수의 80%이다.
- ② 갑~병국 중 성별 근로자 수 차이가 여성 근로자 수의 2배 이상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③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을국이 갑국보다 많다.
- ④ 을국의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0.9배이다.
- ⑤ 병국의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의 30% 미만이다.

MEMO

6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연구자 갑이 OO지역 주민의 소득 분위에 따른 성별 분포와 여성비를 조사한 것이다. 단, 전체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1분위이며, 소득은 5분위 > 4분위 > 3분위 > 2분위 > 1분위 순이다.

소득 구간	여성비	구성 비율(%)	
		남성	여성
1분위	1.13	8	15
2분위	0.90	30	㉠
3분위	0.40	㉡	20
4분위	0.40	㉢	16
5분위	0.30	8	㉣
전체	0.60	100	100

* 여성비 = $\frac{\text{여성 수}}{\text{남성 수}}$

** 여성비는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 ① ㉠과 ㉡의 합은 ㉢과 ㉣의 합의 2배 이상이다.
- ② 3분위에 해당하는 남성 주민 수는 여성 주민 수의 1.5배이다.
- ③ 1분위에 해당하는 여성 주민 수는 5분위에 해당하는 남성 주민 수보다 적다.
- ④ 4분위에 해당하는 여성 주민의 소득 총합은 5분위에 해당하는 남성 주민의 소득 총합보다 적다.
- ⑤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각 분위의 전체 주민 중 남성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 분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MEMO

68

다음 자료를 통해 참 또는 거짓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년 대비 갑국 남/여성 인구 증/감표>

구분		2022	2023
증/감	남성	증가	감소
	여성	감소	증가

<취업 시 발생하는 성차별의 요인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나이	결혼 유무	학력	외모	기타
2021	남성	23.5	26.2	21.1	22.5	6.7
	여성	26.3	28.2	17.9	19.8	7.8
2022	남성	21.6	23.7	22.3	25.7	6.7
	여성	24.4	27.0	22.6	19.5	6.5
2023	남성	22.1	22.5	21.8	27.4	6.2
	여성	27.3	31.5	15.2	20.1	5.9

* 설문 조사는 전수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무응답은 없다.

<보 기>

- ㄱ. 2022년의 조사에서 결혼 유무에 응답한 남성 수는 2021년의 조사에서 외모에 응답한 남성 수보다 많다.
- ㄴ. 2023년의 조사에서 학력에 응답한 여성 수는 2022년의 조사에서 나이에 응답한 여성 수보다 적다.
- ㄷ. 남성과 달리 여성에서 전체 인구 대비 기타에 응답한 인구의 비율은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ㄹ. 2022년과 달리 2023년의 조사에서 학력에 응답한 남성 수 대비 외모에 응답한 여성 수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MEMO

6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는 갑국의 정보 격차 경험자의 학력별, 성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은 농촌과 도시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갑국에서 최종 학력이 대졸 미만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이다.

(단위: %)

구분	최종 학력				성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도시	62		38	44		52	44
농촌		52		52	50		52
전체	66		42	48		54	48

* 학력(성별) 정보 격차 경험자 비율(%) = $\frac{\text{학력(성별) 정보 격차 경험자 수}}{\text{학력(성별) 전체 인구}}$

** 음영이 있는 부분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알 수 있음.

- ① 갑국의 도시 인구는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인구와 같다.
- ② 갑국의 농촌과 도시에서는 모두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정보 격차 경험자 수가 많아진다.
- ③ 갑국서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농촌 정보 격차 경험자 수가 도시 남성 정보 격차 경험자 수보다 많다.
- ④ 갑국 농촌과 도시 모두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인 정보 격차 경험자 수가 여성 정보 격차 경험자 수보다 많다.
- ⑤ 갑국 농촌과 도시 모두 최종 학력이 고졸 이상인 정보 격차 경험자 수가 최종 학력이 중졸 이하인 정보 격차 경험자 수의 3배보다 많다.

7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한 연구자가 노동자 성비와 전체 산업 기준 산업별 상대적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업별 노동 시장에서의 성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는 갑국의 산업별 노동자 성비와 전체 산업 기준 산업별 상대적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산업 구조는 1차~3차 산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산업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20이다.

구분	노동자 성비	전체 산업 기준 산업별 상대적 평균 임금	
		남성	여성
1차 산업	75	86	70
2차 산업	125	91	105
3차 산업	150	111	ⓐ
전체 산업	125	100	100

* 노동자 성비: 여성 노동자 100명당 남성 노동자의 수

** 전체 산업 기준 산업별 상대적 평균 임금은 전체 산업 남성(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산업별 남성(여성) 노동자의 상대적 평균 임금임.

*** 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 \text{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text{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times 100$

**** 남성(여성) 노동자 임금 총액 = 남성(여성) 노동자 수 × 남성(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 ① ⓐ에 들어갈 값은 110보다 작다.
- ② 3차 산업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1차 산업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많다.
- ③ 2차 산업 여성 노동자 수는 1차 산업 남성 노동자 수의 2배이다.
- ④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은 3차 산업이 1차 산업의 5배 미만이다.
- ⑤ 1차 산업 여성 노동자 임금 총액은 2차 산업 남성 노동자 임금 총액의 25% 이상이다.

MEMO

7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자료는 갑국의 연도별 성별 고용 격차 지수와 이전 조사 연도 대비 남성·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증가율을 조사한 것이다.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별 고용 격차 지수는 노동적 측면에서 성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단, 제시된 기간 동안 갑국의 여성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갑국의 t년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40이다.

구분	t년	t+10년	t+20년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	125/3	125/3	50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	50	50	75
성별 고용 격차 지수	0	20	100/3

*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 = $\frac{\text{당해 조사 연도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 \text{직전 조사 연도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text{직전 조사 연도 평균 임금}} \times 100$

** 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 \text{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text{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 \times 100$

*** 성별 고용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근로자 수} - \text{여성 근로자 수}}{\text{전체 근로자 수}} \times 100$

****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 $\frac{\text{성별 근로자 전체 임금}}{\text{성별 근로자 수}} \times 100$

- ① 갑국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조사 연도 중 t+10년에 가장 크다.
- ② 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격차는 조사 연도 중 t+10년에 가장 크다.
- ③ 갑국의 t년 대비 t+10년 남성 근로자 수 증가율은 50%를 초과한다.
- ④ 갑국의 t년 남성 근로자 총임금은 t+20년 여성 근로자 총임금보다 적다.
- ⑤ 조사 연도 중 경제적 측면보다 노동적 측면에서 갑국의 성 불평등 정도가 심화된 연도는 한 연도뿐이다.

MEMO

7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 회사의 인사팀장 갑은 회사 내 인사 현황을 조사하여 성 불평등 현황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A 회사 내 인사 지표>는 t년 A 회사에 지원하여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 비율, 이들 중 t+10년 정직원으로 승진한 인원의 비율, 이들 중 t+20년 임원으로 승진한 인원의 비율을 성별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A 회사 내 직급에 따른 임금 지표>는 t년 채용된 인턴, t+10년 승진한 정직원, t+20년 승진한 임원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와 t년 채용된 인턴의 평균 임금 대비 t+10년 승진한 정직원의 평균 임금 증가율, t+10년 승진한 정직원의 평균 임금 대비 t+20년 승진한 임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나타낸다.

<A 회사 내 인사 지표>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t년 인턴 채용률	50	40	①
t+10년 정직원 승진율	30	20	25
t+20년 임원 승진율	20	10	②

<A 회사 내 직급에 따른 임금 지표>

구분	t년 인턴	t+10년 정직원	t+20년 임원
성별 임금 격차 지수	20	40	50
평균 임금 증가율(%)		100	300

$$* \text{성별 임금 격차 지수} = \frac{(\text{남성 직원 평균 임금} - \text{여성 직원 평균 임금})}{\text{전체 직원 평균 임금}} \times 100$$

** A 회사에서 각 연도에 입사한 인원들에 대한 승진은 입사 이후 1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 성별 · 직급별 직원 임금 총액 = 성별 · 직급별 직원 수 × 성별 · 직급별 직원 평균 임금

- ① ①에 들어갈 값은 ②에 들어갈 값의 3배 이상이다.
- ② t년 남성 지원자 수 대비 여성 지원자 수의 비는 t+10년 승진한 남성 정직원 수 대비 여성 정직원 수의 비의 2배이다.
- ③ t+20년 승진한 여성 임원 평균 임금은 t년 입사한 전체 인턴 평균 임금의 6배이다.
- ④ t년 채용된 남성 인턴 임금 총합은 t+10년 승진한 여성 정직원 임금 총합의 3배 미만이다.
- ⑤ t+10년 승진한 남성 정직원 임금 총합은 t+20년 승진한 전체 임원 임금 총합보다 많다.

MEMO

3. 현대의 사회 변동

#73~#77 Level 1

#78~#89 Level 2

#90~#97 Level 3

#98~#100 Level 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 중 하나임.)

다음은 조사 연도별 갑국의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부양 인구(15~64세 인구),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t년 대비 전체 인구 상승률은 t+10년이 50%, t+20년이 100%이며, t+10년의 노령화 지수는 t년의 3배이다.

(단위: %)

구분	t년	t+10년	t+20년
A	60	60	55
B	10	20	25
C	30	20	2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text{유소년 인구}} \times 100$$

- ① A는 부양 인구, B는 유소년 인구이다.
- ② t+20년 유소년 인구는 t년 노년 인구의 2배이다.
- ③ 노년 부양비는 t+20년이 t년의 3배보다 크다.
- ④ 노령화 지수는 t년과 t+10년의 합이 t+20년보다 크다.
- ⑤ 제시된 기간 동안 유소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7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은 A, B 지역과 갑국 전체의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구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A 지역	22	28
B 지역	26	24
갑국 전체	㉠	27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에 들어갈 값은 25이다.
- ㄴ. 유소년 인구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 ㄷ. 갑국 전체 유소년 인구는 A 지역 노년 인구보다 많다.
- ㄹ.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갑국 전체보다 B 지역이 높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MEMO

7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의 부양 인구에 대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비(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부양 인구는 t+20년이 t년의 2배이며, 유소년 인구는 t+10년과 t+20년이 같다.

구분	t년	t+10년	t+20년
유소년 인구	0.7	0.25	0.2
노년 인구	0.3	0.25	0.3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① t년과 t+10년의 전체 인구는 같다.
- ②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20년의 노년 인구보다 적다.
- ③ 주어진 기간 동안 노년 인구와 노년 부양비는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④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t+10년과 t+20년의 유소년 부양비의 합보다 크다.
- ⑤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합은 t년이 t+10년보다 많고, t+20년보다 적다.

MEMO

7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현재(t년) 갑국은 표와 같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갑국 정부는 향후(t+100년) 발생할 인구 변화를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예측하여 A, B의 결과를 얻었다. t년의 부양 인구(15~6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75%이며, t+100년의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라고 가정한다.

구분	현재(t년)	t+100년의 시나리오 예측 결과	
		A	B
유소년 인구 (0~14세 인구)	500만 명	t년 대비 50% 증가	t년 대비 40% 감소
노년 인구 (65세 이상 인구)	250만 명	t년 대비 동일 인구 유지	t년 대비 100% 증가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시나리오 A에서의 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4배이다.

- ① ㉠에 들어갈 값은 60%이다.
- ② A의 전체 인구는 B의 전체 인구보다 20% 많다.
- ③ A의 노년 부양비는 B의 유소년 부양비와 같다.
- ④ 현재의 유소년 부양비는 B의 노년 부양비보다 크다.
- ⑤ 출산 장려, 노인 복지의 필요성은 B보다 A에서 더 부각된다.

MEMO

7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주어진 기간 동안 15~6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구분	t년	t+10년	t+20년
노년 부양비	15	27	36
노령화 지수	30	45	75

* 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임.

<보 기>

- ㄱ. 전체 인구는 t+10년이 t+20년보다 많다.
- ㄴ. t년은 고령화 사회, t+10년과 t+20년은 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 ㄷ. 전체 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t+20년보다 높다.
- ㄹ. t년 대비 t+1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0~14세 이상인구의 증가율의 1.8배를 초과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MEMO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의 t년 유소년 부양비는 t+10년의 노년 부양비와 같으며, t년 대비 t+10년에 부양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t년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의 125%, t+10년 총부양비의 75%이고 t+10년 전체 인구는 t년 유소년 인구의 500%이다.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 \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피부양 인구} = \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 + \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 ① t년과 t+10년의 유소년 인구는 동일하다.
- ② t년 대비 t+10년에 노년 인구 증가율은 노년 부양비 증가율보다 작다.
- ③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10년이 t년의 3배 이상이다.
- ④ t년 대비 t+10년에 피부양 인구 증가율은 부양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 ⑤ 인구 고령화 현상 심화의 문제는 t년보다 t+10년에 더 부각된다.

7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갑국의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t년 유소년 인구 수는 t-30년 노년 인구 수의 2배이며,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t년이 t-30년의 120%이다.

구분	t-30년	t년	t+30년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	30	㉠	10
노령화 지수	50	120	㉡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text{유소년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 + \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① ㉠은 t-30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의 2배이다.
- ② t-30년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차는 전체 인구의 20%이다.
- ③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t-30년이 t년보다 높다.
- ④ t년과 t+30년의 노인 인구 비율이 같다면 ㉡는 150이다.
- ⑤ ㉡이 300이고 t+30년 부양 인구가 t년 유소년 인구의 3배라면, t+30년 전체 인구는 t-30년 노년 인구의 10배이다.

MEMO

80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

(단위: %)

구분	언어 장벽	인종 차별	경제적 격차	기타
내국인	36.4	28.8	68.7	42.1
외국인	55.0	19.5	79.8	37.9
전체	42.6	25.7	72.4	40.7

* 표는 갑국 내 전수 조사의 결과이며, 무응답은 없고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

- ① 언어 장벽을 선택한 응답자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다.
- ② 기타를 선택한 전체 응답자는 경제적 격차를 선택한 내국인 응답자보다 적다.
- ③ 인종 차별을 선택한 내국인 응답자는 인종 차별 또는 기타를 선택한 외국인 응답자보다 많다.
- ④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서 경제적 격차를 선택한 응답자는 언어 장벽 또는 인종 차별을 선택한 응답자보다 많다.
- 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서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언어 장벽 또는 인종 차별을 선택한 응답자보다 적다.

MEMO

81

표는 갑국의 인구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15~64세 인구는 주어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구분	t년	t+10년	t+20년
노령화 지수	60	75	100
유소년 부양비	25	24	25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① t년 대비 t+10년에 15~64세 인구 변화율보다 0~14세 인구 변화율이 크다.
- ②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t년이 t+10년보다 높다.
- ③ 10년 전 대비 총인구는 t+10년과 t+20년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 ④ 제시된 기간 중 15~64세 인구 대비 총인구의 비율은 t+10년에서 가장 높다.
- ⑤ 제시된 기간 중 0~14세 인구 100명당 15~64세 인구의 수는 t년이 t+10년보다 많다.

MEMO

8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년 대비 t+1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20% 증가하였고 을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단,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구분	t년		t+1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15	25	20
유소년 부양비	60	70	50	20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①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는 t+10년 노년 인구와 같다.
- ② 노년 부양비는 t년 갑국이 t+10년 을국보다 크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10년 을국이 t년 갑국의 2배 미만이다.
- ④ 을국의 부양 인구는 t+10년이 t년의 2배이다.
- ⑤ 갑국의 t+10년 노년 부양비는 을국의 t년 노령화 지수보다 크다.

MEMO

8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t년 부양 인구는 t+10년 부양 인구의 80%이며, t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10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37.5%이고 t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5%이다. 표는 갑국의 연도별 총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t년	t+10년
총부양비	100	140

- * 노령화 지수 = (노인 인구 / 유소년 인구) × 100
-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 노년 부양비 = (노인 인구 / 부양 인구) × 100
- **** 총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인 인구) / 부양 인구] × 100

- ① t년 대비 t+10년 전체 인구 증가율은 50%이다.
- ② t년 부양 인가와 t+10년의 노인 인구는 동일하다.
- ③ t+10년 노령화 지수는 t년 노령화 지수의 4배이다.
- ④ t년 유소년 인구는 t+10년과 동일하다.
- ⑤ t년 노인 인가와 유소년 인구의 합은 t+10년 부양 인가와 동일하다.

MEMO

8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t년		t+2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전체 인구 중 0~14세 인구의 비율(%)	40	10	10	20
노년 부양비	20	50	20	60

* 유소년 부양비 = $(0\sim 14\text{세 인구} / 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65\text{세 이상 인구} / 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피부양 인구 = 0~1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갑국의 t년 15~64세 인구는 t+20년 피부양 인구와 같고, t+20년 갑국의 15~64세 인구와 을국의 t년 전체 인구, t+20년 전체 인구는 모두 같다.

- ① 갑국과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같다.
- ②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 대비 노년 부양비의 비는 t년이 t+20년보다 크다.
- ③ 을국의 t+20년 피부양 인구는 갑국의 t년 피부양 인구와 같다.
- ④ 을국의 t년 대비 t+20년 유소년 부양비 증가율은 유소년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
- 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t년보다 t+20년에 더 부각된다.

MEMO

85

다음은 갑국의 인구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은 A~C 세 지역으로만 구성됨.)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지역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	30	32	26	30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	10	25	22	17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① A 지역 전체 인구는 B, C 지역 전체 인구의 합과 같다.
- ② 전체 지역 부양 인구는 A 지역 전체 인구보다 많다.
- ③ A 지역과 C 지역의 유소년 부양비는 같다.
- ④ A~C 지역 중 전체 인구가 전체 지역의 노인 인구보다 적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⑤ 노년 부양비는 A~C 지역 중 B 지역에서 가장 크고, A 지역에서 가장 작다.

MEMO

8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연도에 따른 갑국의 연령별 인구에 관한 정보이다.

- 50년 전 대비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t+50년, t+100년 모두 100%이다.
- t년, t+50년, t+100년 유소년 인구는 모두 같다.
- t+50년과 t+100년 총부양비는 50으로 같다.
- t년 노년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의 50%이다.
- t+50년과 t+100년 전체 인구의 합은 t년 전체 인구의 3배이다.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총부양비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령화 지수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100

- ① t+100년 부양 인구는 t년 전체 인구보다 적다.
- ② t년 노년 인구는 t+50년 유소년 인구와 같다.
- ③ t+100년 노년 부양비는 t년 총부양비보다 크다.
- ④ t년과 t+50년 부양 인구의 합은 t+100년 전체 인구보다 많다.
- ⑤ t+50년 대비 t+100년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부양 인구의 증가율보다 높다.

MEMO

8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XX 농촌 연구소에서는 A, B 두 지역의 인구 증가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를 사용했으며,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다음 표와 같은 자료를 얻었다.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는 '2자녀 이상 출생률 (2자녀 이상 출생아 수를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 / 인구 비율(가임 여성 인구를 총 여성 인가로 나눈 비율)'이다. 단, 연구소는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를 20년 단위로 산출한다.

구분	A 지역		B 지역	
	t년	t+20년	t년	t+20년
불임 여성 인구 대비 가임 여성 인구의 비	0.2	0.3	0.4	0.3
1자녀 이하 출생아 수 대비 2자녀 이상 출생아 수의 비	0.8	1.0	0.6	0.8

- ① t+20년 A 지역 총 출생아 수는 2자녀 이하 출생아 수의 1.5배이다.
- ② t년 B 지역 전체 여성 인구는 불임 여성 인구의 3배 이상이다.
- ③ t년 A 지역과 B 지역의 2자녀 이상 출생아 수가 같다면, t년 총 출생아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 ④ t+20년 B 지역의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는 A 지역보다 낮다.
- ⑤ t년 대비 t+20년 A 지역과 B 지역 모두에서 지역 재생 잠재력 지수가 감소했다.

MEMO

88

다음은 갑국의 인구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은 A~C 세 지역으로만 구성됨.)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갑국 전체
유소년 부양비	22	24	28	24
노년 부양비	27	32	32	30

-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 노령화 지수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100
- **** 피부양 인구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① 부양 인구는 A 지역이 C 지역의 2배이다.
- ② 갑국 전체 노년 인구는 B 지역 15~64세 인구의 75%이다.
- ③ C 지역 피부양 인구는 B 지역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 ④ A~C 지역 중 전체 인구가 갑국 전체 피부양 인구보다 많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⑤ 노령화 지수는 A~C 지역 중 B 지역에서 가장 크고, C 지역에서 가장 작다.

MEMO

8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 부양 인구는 t+20년과 t+40년이 t년의 1.5배임.)

구분	t년	t+20년	t+40년
$\frac{\text{노년 부양비}}{\text{총부양비}}$	$\frac{3}{10}$	$\frac{1}{2}$	$\frac{3}{5}$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	㉠	20	㉡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	50	㉢	5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총부양비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① ㉠과 ㉡의 합은 ㉢보다 크다.
- ② t년과 t+20년의 전체 인구는 같다.
- ③ 노년 부양비는 t년과 t+20년의 합이 t+40년보다 크다.
- ④ t+40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t년의 15~64세 인구보다 많다.
- ⑤ t+20년과 t+40년의 유소년 부양비의 합은 t년의 유소년 부양비보다 작다.

MEMO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에서 10년 전 대비 부양 인구 증가율은 t+10년이 20%, t+20년이 25%이고 전체 인구는 t+20년이 t년의 1.5배, 유소년 인구는 1배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t+10년이 25%, t+20년이 30%이고 노년 부양비 대비 유소년 부양비의 비는 t년이 1.5, t+10년이 1이다.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보 기> —

- ㄱ. t년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20년 노년 인구와 같다.
- ㄴ. 제시된 기간 동안 유소년 인구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 ㄷ. 유소년 부양비는 t+20년과 t+10년의 합이 t년보다 크다.
- ㄹ. 10년 전 대비 노년 부양비의 증가율은 t+10년과 t+20년이 같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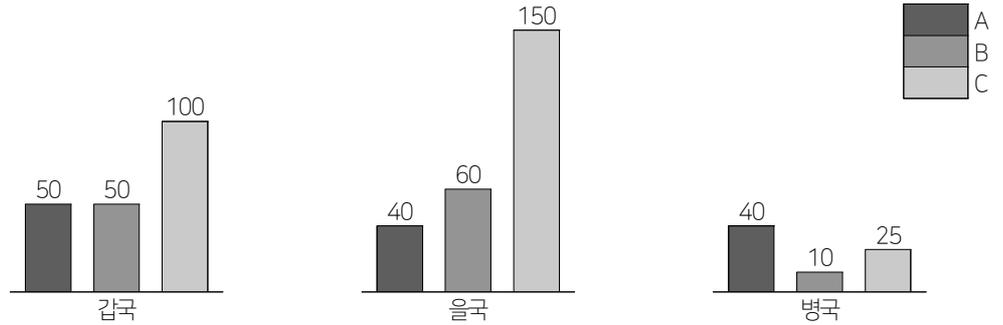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 그림은 갑~병국의 A~C의 크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중 하나이다. 단, 부양 인구의 비는 갑국 : 을국 : 병국 = 1 : 2 : 2이며,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갑국의 부양 인구보다 적다.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① A는 노년 부양비, B는 유소년 부양비, C는 노령화 지수이다.
- ②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병국의 노년 인구의 2배이다.
- ③ 을국의 노년 인구는 갑국의 부양 인구보다 적다.
- ④ 노년 인구는 갑~병국 중 갑국에서 가장 적다.
- 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갑국과 병국이 같다.

MEMO

9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20년 전체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 비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과 을국은 모두 t년의 노년 인구 수와 유소년 인구 수가 같으며,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 대비 t+20년에 2배로 상승하였다. 또한 갑국의 t년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이다.

구분		전체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 비율의 상대적 크기					
갑국	t년						
	t+20년						
을국	t년						
	t+20년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피부양 인구 =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 ① t+20년 갑국의 피부양 인구는 t년 을국의 부양 인구와 같다.
- ② 갑국과 을국은 모두 t년보다 t+20년 노령화 지수가 크다.
- ③ 갑국과 을국은 모두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 증가율보다 노년 부양비 증가율이 크다.
- ④ t+20년과 달리 t년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⑤ t년 대비 t+20년 감소한 갑국 부양 인구는 t년 대비 t+20년 증가한 을국 피부양 인구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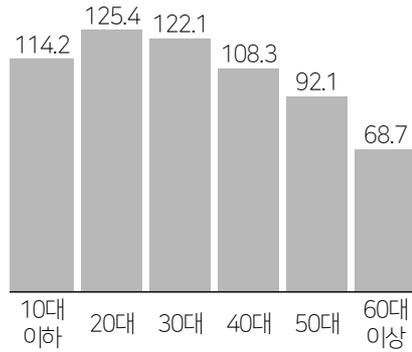
MEMO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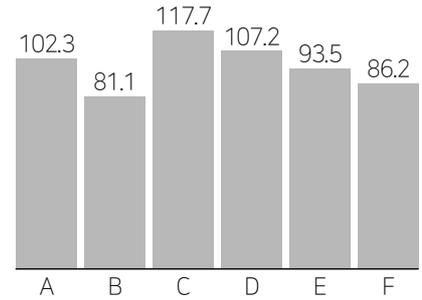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갑국의 연령별 및 지역별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관해 나타낸 것이다. 단,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100이라 가정하며, 갑국은 A~F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연령별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



<지역별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



- ①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60대의 두 배 이상인 연령대는 하나뿐이다.
- ②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50대보다 낮은 지역은 세 군데이다.
- ③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20대 이상 30대 이하보다 낮지 않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C 지역에서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20대가 30대보다 높다.
- ⑤ E 지역 50대의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F 지역 40대의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보다 높다.

MEMO

9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과 을국은 전체 인구를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로 구분하며, A~C는 각각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중 하나이다. 단, 갑국과 을국은 모두 t+20년 총인구가 t년의 2배이며, t년 갑국 피부양 인구는 t+20년 을국 유소년 인구와 같고, t+20년 총인구는 을국이 갑국보다 많다.

구분	t년		t+2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frac{A+C}{B+C}$	1	$\frac{9}{7}$	$\frac{7}{8}$	$\frac{11}{13}$
$\frac{A+C}{A+B}$	2	$\frac{9}{4}$	$\frac{7}{5}$	$\frac{11}{6}$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피부양 인구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조사 기간 동안 갑/을국 모두에서 피부양 인구는 부양 인구보다 많지 않다.

- ① A는 유소년 인구, B는 부양 인구, C는 노년 인구이다.
- ② t+20년 갑국에서 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배이다.
- ③ t년 갑국 부양 인구는 t+20년 을국 피부양 인구와 같다.
- ④ 을국은 갑국과 달리 t년 대비 t+20년에 노년 부양비가 2배 이상 상승하였다.
- ⑤ 갑국과 을국은 모두 t년 대비 t+20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하락하였다.

MEMO

9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t년			t+10년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노년 부양비	60	50	54	㉠	60	40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	40	㉡	50	75	50	6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갑국은 A, B 두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t+10년 B 지역 전체 인구는 t년 갑국 전체 인구의 75%이다.

- ①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의 4배이다.
- ② t년 A 지역 부양 인구는 t+10년 B 지역 노년 인구보다 많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년 B 지역이 t+10년 B 지역의 2배이다.
- ④ t년 B 지역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10년 A 지역 부양 인구의 50% 미만이다.
- ⑤ t년 A 지역 유소년 부양비는 t+10년 B 지역 유소년 부양비의 2배 미만이다.

MEMO

96

다음은 갑국의 인구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은 A~C 세 지역으로만 구성됨.)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노년 부양비	24	50	16	25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15	25	10	15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령화 지수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100

- ① 전체 인구는 C 지역이 B 지역의 2배이다.
- ② A 지역 0~14세 인구는 갑국 전체 15~64세 인구의 15%이다.
- ③ 갑국 전체 65세 이상 인구는 A 지역 0~14세 이상 인구의 3배이다.
- ④ A~C 지역 중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인 지역은 한 지역뿐이다.
- ⑤ A~C 지역 중 65세 이상 인구가 0~14세 인구보다 많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MEMO

9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가), (나) 두 지역으로만 구성됨.)

표는 조사 연도별 (가), (나) 두 지역과 갑국 전체의 연령대별 인구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부양 인구(15~64세 인구),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중 하나이다. 단, 갑국 전체 노령화 지수는 t+20년이 t년의 2배이다.

구분	t년			t+20년		
	(가) 지역	(나) 지역	갑국 전체	(가) 지역	(나) 지역	갑국 전체
$\frac{A+B}{B+C}$	$\frac{7}{5}$	$\frac{8}{5}$	$\frac{3}{2}$	$\frac{9}{5}$	$\frac{8}{5}$	$\frac{5}{3}$
$\frac{A+C}{B+C}$	$\frac{8}{5}$	$\frac{7}{5}$	$\frac{3}{2}$	$\frac{6}{5}$	$\frac{7}{5}$	$\frac{4}{3}$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text{유소년 인구}} \times 100$

**** t+20년 갑국 전체 인구는 t년 (나) 지역 인구의 3배이다.

- ① A~C는 각각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 노년 인구이다.
- ② t년 갑국 전체 인구는 t+20년 (가) 지역 인구와 같다.
- ③ t년 대비 t+20년 (가) 지역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나) 지역 유소년 인구 증가율은 같다.
- ④ (가) 지역과 (나) 지역 유소년 부양비의 합은 t년이 t+20년의 1.5배이다.
- ⑤ (나) 지역과 달리 (가) 지역은 t년 대비 t+20년 노년 인구 증가율과 노년 부양비 증가율이 같다.

MEMO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50년 간격으로 갑국의 연령대별 인구 현황과 50년 전 대비 빈곤 인구 비율 변화율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조사 기간 동안 갑국의 15~6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t년 15~64세 빈곤 인구는 t+50년 0~14세 빈곤 인구의 150%이고 t+100년 65세 이상 빈곤 인구 비율과 같고, t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빈곤 인구 비율을 모두 합친 값은 60%이다. 단, 갑국은 빈곤 인구를 '빈곤 가구의 구성원인 인구'로 정의한다.

<연령대별 인구 현황>

구분	t년	t+50년	t+100년
3 × 노령화 지수	100	375	450
3 × 총부양비	200	270	250

<연령대별 50년 전 대비 빈곤 인구 비율 변화율>

구분		t+50년	t+100년
연령대별 50년 전 대비 빈곤 인구 비율 변화율(%)	65세 이상 인구	0	50
	15~64세 인구	-20	25
	0~14세 인구	100	25

$$* \text{총부양비} = \frac{0\sim 14\text{세 인구} + 65\text{세 이상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65\text{세 이상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50년 전 대비 빈곤 인구 비율 변화율} = \frac{(\text{당해 빈곤 인구 비율} - \text{50년 전 빈곤 인구 비율})}{\text{당해 빈곤 인구 비율}} \times 100$$

- ① 0~14세 인구는 t+50년이 t+100년보다 많다.
- ② t+50년 대비 t+100년 인구 변화율은 15~6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높다.
- ③ t년 0~14세 빈곤 인구는 t+50년 65세 이상 빈곤 인구의 50%이다.
- ④ 조사 기간 동안 갑국의 전체 소득에서 65세 이상 빈곤 인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⑤ t+50년과 t+100년의 0~14세 인구 수가 같다면, 연령대별 인구 중 t+50년 대비 t+100년 빈곤 인구 상승률이 가장 큰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이다.

9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표는 A~D지역과 갑국 전체의 피부양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은 A~D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갑국 전체에서 A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노년 부양비는 62이다.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갑국 전체
피부양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	50	30	50	25	40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	50	50	40	60	50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text{피부양 인구} = \text{노년 인구} + \text{유소년 인구}$$

<보 기>

- ㄱ. D 지역 노년 인구는 A 지역 유소년 인구의 2배이다.
- ㄴ. A~D 지역 중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큰 지역과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큰 지역은 다르다.
- ㄷ. A 지역과 B 지역 피부양 인구의 합은 C 지역의 피부양 인구보다는 적고, D 지역의 피부양 인구보다는 많다.
- ㄹ. A~D 지역 중 부양 인구가 갑국 전체 유소년 인구보다 적지 않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MEMO

100

표는 연령별 인구의 변화에 따른 갑국의 인구 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중 하나임.)

<갑국의 전년도 대비 각종 인구 지표의 변동 양상>

구분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	A	B	C
2021년	감소	증가	변동 없음	㉠	하락	상승
2022년	㉡	감소	증가	㉢	상승	㉣
2023년	감소	변동 없음	㉤	상승	하락	㉥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 부양 인구(15~64세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 부양 인구(15~64세 인구)} × 100

*** 노령화 지수 =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 100

- ① ㉠, ㉣에는 ㉢, ㉥과 달리 '하락'이 들어갈 수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변동 없음'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A는 노년 부양비, B는 노령화 지수, C는 유소년 부양비이다.
- ④ 전년 대비 2022년의 노년 인구 증가율은 총인구 증가율보다 높다.
- ⑤ 2023년에 총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MEMO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⑤	③	③	⑤	③	④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⑤	⑤	④	④	④	⑤	⑤	③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⑤	②	⑤	③	⑤	⑤	④	⑤	①	④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⑤	③	⑤	⑤	②	①	①	④	②	③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⑤	①	④	③	②	②	③	③	④	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①	④	②	②	①	①	②	⑤	②	④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④	②	⑤	③	⑤	⑤	①	④	②	②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①	⑤	④	②	④	④	②	②	⑤	⑤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①	③	⑤	④	④	①	④	④	③	②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⑤	③	③	④	③	②	⑤	⑤	②	①

